

도시형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민 인식^{1a}

-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

김정민²

Perceptions on the Nature Trail in the National Park in the City^{1a}

- Focused on the Seoulite's Perception on Dullegil in Bukhansan National Park, Korea -

Jeong-Min Kim²

요약

본 연구는 대표적인 도시형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환경과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탐방문화로서 도입, 운영 중인 둘레길 조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활발한 조성이 예상되는 도시형 국립공원 내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20~69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권역/성/연령대별로 모집단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총 300명을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시민의 65% 이상이 등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정상지향형 등반행태를 보였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 대한 이용의사는 5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산정상부로 집중된 탐방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둘레길에 대한 향후 이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 등산계층에서는 이용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아 산정상부의 탐방집중을 분산하기 위한 둘레길 조성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보전지향적 관리가 이용보다는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대다수는 이용과 보전의 균형적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레길의 조성원칙으로는 '자원보전 노력'이, 조성방향으로는 '북한산의 생태환경 보존과 생태적 가치 향유'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들었으며, 안전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나타났다. 적정 탐방시간은 1~3시간, 적정길이는 11~20km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지가 북한산국립공원에 한정되고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잠재적 이용 수요 분석에 머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도시형 국립공원의 둘레길 조성과 관리를 위한 보다 일반화 될 수 있는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탐방세분시장별, 행태별, 수요별로 세분화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주요어: 지속가능성, 탐방행태, 균형적 관리, 조성원칙, 조성방향

ABSTRACT

The study aims to provide future implications for planning nature trails called Dullegil in the national park located in the city in Korea as new visiting culture for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 and use. The telephone survey used quota sampling with 300 Seoulite ages from 20 to 69 by area, gender, and age, which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perception on a Dullegil in Bukhansan National Park. The result shows more than 65% of Seoulite go climbing and aiming the mountain top as a general visitor behavior. The intention to use Dullegil was very

1 접수 2010년 12월 20일, 수정(1차: 2011년 2월 25일), 게재확정 2011년 2월 26일

Received 20 December 2010; Revised(1st: 25 February 2011); Accepted 26 February 2011

2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Division of Tourism, Sangji University, Wonju(220-702), Korea(rina27@sangji.ac.kr)

a 본 논문은 상지대학교 2007년 연구년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rina27@sangji.ac.kr)

high at 58%, which forecasts the use of Dullegil as a substitute for a trail to the intensified mountain top.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Dullegil to divert intensive use could be limited as the major group of climbers showed relatively low intention to use Dullegil as an alternative. As for the management direction, majority favors balanced management between use and conservation, even if conservation was preferred to use. Most important guiding principle for building Dullegil was conservation of environment, the planning direction should be oriented to conserve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Bukhansan, and to enjoy its value. Facilities for visitor safety was most needed. Most preferable time and length were 1~3 hours and 11~20km, each. This study has a limitation as the site was limited to Bukhansan and potential demand for use was analyzed with the sample of Seoulite only. To come up with the results generally applicable, more detailed future researches by the visitor segmentation, use behavior, and demand are needed.

KEY WORDS: SUSTAINABILITY, VISITOR BEHAVIOR, BALANCED MANAGEMENT, GUIDING PRINCIPLE, PLANNING DIRECTION

서론

최근에 제주도 올레길에서 시작된 새로운 걷기문화와 도보여행이 웰빙트렌드의 확산과 더불어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리산 둘레길, 남해바래길, 무등산옛길, 소백산 자락길 등 지자체들 주도하에 전국 각지에서 자연생태자원을 위주로 하는, 걷기를 위한 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연생태자원인 국립공원도 이러한 열풍의 예외는 아니어서 답압의 집중으로 인한 산정상부 훼손과 야생 동·식물 서식지의 파괴 등의 폐단이 많은 정상 정복형 수직탐방 행태를 개선하고, 다양한 숲 생태와 문화 등의 체험기회를 위한 수평적 탐방으로 산행문화를 변화시키는 시도들이 둘레길의 조성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09년 예약제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이 개방된 이후 국립공원의 생태, 문화, 경관을 주 테마로 하여 저지대에 위치한 비법정 탐방로인 셋길과 옛길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둘레길은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탐방객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새로운 탐방문화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서울성곽과 사찰 등 문화유적이 많이 분포하여 연평균 1,000만 명 이상의 수도권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탐방객의 집중적 이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셋길 발생과 토양 침식, 오염과 식생훼손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훼손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형 국립공원으로 이용과 보전의 갈등 양상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은 저지대에 무분별하게 형성된 셋길과 체육시설지를 폐쇄 혹은 복원하여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저지대에서도 북한산의 자연생태,

경관, 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서울 시민과 수도권 인구를 만족시키는 흥미있는 주제의 탐방로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수직탐방 이용 행태를 분산시켜 지속가능한 도시형 국립공원의 탐방문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9a)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행해지는 관리의 대상은 공원 내 자원과 탐방객이며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력 초과로 인한 심각한 자연훼손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탐방객관리는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관리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공원관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Kim, 2007). 특히 수도권에 입지하여 고도로 이용이 집중되는 도시형 국립공원의 경우 다양한 자원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소기의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둘레길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용주체가 될 시민들의 이용 수요 등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도시형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도시민의 이용 경험의 질적 증가와 공원 환경의 지속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새로운 탐방문화로서 도입, 운영 중인 둘레길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활발한 조성이 예상되는 도시형 국립공원 내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레길의 개념과 유사조성 사례

둘레길은 ‘사물의 테두리나 바깥 언저리’ 혹은 ‘사물의 가를 한 바퀴 돈 길’을 의미하는 고유어인 ‘둘레’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혹은 ‘걷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을 의미하는 '길'(Dong-A Korean Dictionary)의 합성어이다. 최근 웰니스 열풍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걷기문화와 도보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정상정복형 산행의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에 이용되고 있던 저지대 길을 환형으로 연결하여 자연생태와 경관, 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비 및 서비스 지원이 체계화된 탐방로를 의미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탐방로는 '진입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국립공원의 탐방자원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보행자 도로(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2)'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공사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는 법정탐방로, 혹은 정규탐방로와 탐방객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사하지 않은 비법정탐방로, 혹은 비정규탐방로로 구분된다. 둘레길은 주로 저지대 비법정탐방로인 샛길을 중심으로 선정, 혹은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시민 탐방객의 이용행태와 접근성을 고려하고, 고지대 생태계 보호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취락지, 관광지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이라는 둘레길 조성 목적에 기인한다.

저지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느리게 걷기를 위해 조성된 길들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의 시초는 제주도 올레길이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모델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추진된 올레길은 2007년 9월 제 1코스가 개발된 이후 2010년 10월까지 총 22개의 코스가 개발되었고 현재 총 365km 정도가 조성되어 있다. 올레길은 통상 큰길에서 집의 대문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뜻하는 제주방언으로 각 코스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15km 이내이며, 평균 소요시간은 5~6시간 정도이다. 주로 제주의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제주 주변의 작은 섬을 도는 코스도 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는 지속적으로 코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길들 중 걷기 좋은 길을 선별하고 이 길들을 서로 연결하여 코스를 만드는 형태이며, 필요한 경우 폭을 넓히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걷기 좋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추가된다. 계획적인 코스 개발과 홍보를 통해 올레길은 제주도의 자연, 경관,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였음은 물론, 해마다 급증하는 탐방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변 관광정보의 제공, 기념품 판매, 커뮤니티 구축 등을 통해 '올레노믹스'란 신조어(Maeil Business, 2010)가 생겼을 만큼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제주도 관광사업에 가져왔다.

지리산길은 산행문화 개선을 위해 국내 최초의 장거리 도보 트레일로 계획되었다. 전남, 경북, 전북의 3개 도와 남원시,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구례군 등의 5개 시·군, 16개 읍면과 80여 개 마을을 거치는 총 길이가 약 320km의 도보길은 지리산 곳곳에 걸쳐 있는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길, 마을길 등 길을 중심으로 자연자원, 고유한 역사, 문화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환(環)형으로 연결하고 있다. 산림청 녹색자금의 지원 하에 각종 자원 조사와 정비를 통해 2011년 까지 조성 예정 중인 지리산길은 2008년 4월,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구간 20.78km가 시범구간으로 조성된 이후 현재 주천~운봉, 운봉~인월, 인월~금계, 금계~동강, 동강~수철의 5개 구간(70.1km)이 운영되고 있다. 조성목적은 한국형 트레일의 전형으로서 길을 통해 광역 단위의 자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느림 지향의 문화와 공정여행을 확산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신개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며, 옛길을 최대한 원형으로 복원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www.trail.or.kr).

재료 및 방법

1. 대상지 현황

북한산국립공원은 수도 서울에 위치하여 약 1,000만 서울시민과 2,500만 수도권 인구의 생태체험과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드문 도시형 국립공원이다. 총 면적은 79.916km²로 행정구역상 서울시 6개구(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와 경기도 3개시(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에 걸쳐 있는 입지와 다양한 교통수단에 의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접지역에서 오는 탐방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0a; 2007a; Lim, 2002). 계절별 탐방객 편차가 크지 않고, 월 1회 이상 방문도 65%에 달하는 등 재방문율도 매우 높아 도시 근린공원과 같은 탐방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폐지 전에 비해 80%~110% 증가한, 연 인원 800~1,00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으며(Table 1) 무료입장의 상대적 혜택감으로 인한 탐방객 증가는 물론 동창회, 친목모임, 회사 단합대회 등 단체 모임장소로 북한산국립공원을 선호하는 경향도 증가하면서 국립공원을 유원지 개념으로 산행하는 단체탐방객도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15개 산악형 국립공원 중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객수는 타 산악형 국립공원 탐방객수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특히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2007년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객수는 10,191천명으로 이는 가장 적은 탐방객이 방문한 월출산국립공원(285천명)의 약 36배, 지리산국립공원(2,725천명)의 약 3.7배,

Table 1. Numbers of Visitors to Bukhansan National Park (in thousand)

Year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No.of Visitors	4,035	4,205	3,951	4,708	5,411	5,705	4,875	10,191	8,966	8,654
% of Increase	-3.35	4.21	-6.04	19.16	14.93	-6.21	-3.94	109.05	-12.02	-3.48

*Source: KNPS Statistics 2010 (<http://knps.or.kr/>)

설악산국립공원(3,490천명)의 약 2.9배로 다른 산악형 국립공원에 비해 약 2.9배에서 36배가 넘는 수치이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0b). 과도한 탐방객으로 인해 탐방압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객은 북한산국립공원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용인원을 약 5배나 초과한 상태이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7b).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압력과 비교하면 북한산국립공원은 1km당 52,536명으로 가장 높은 탐방로 이용밀도를 보였으며, 1km²당 연간 이용밀도는 108,459명으로 15개 국립공원 중 가장 높다. 이는 두 번째로 탐방압력이 높은 계룡산국립공원(26.7천명/km²)에 비해 약 4.1배가 높은 수치이며,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5.8천명/km²)보다 18.7배, 가장 낮은 탐방압력 보이는 소백산국립공원에 비해서는 약 75.4배나 높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0b).

탐방로는 법정탐방로 74개소(160km), 셋길 365개소(222km) 등 총 439개소의 탐방로(382km)가 분포하고 있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4a; 2007a; 2009b). 북한산국립공원보다 약 5.9배가 넓은 지리산국립공원과 비교할 때 탐방로는 16배, 거리는 1.9배가 높은 데 북한산국립공원은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단위면적당 탐방객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법정탐방로도 다른 국립공원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다. 따라서 탐방로도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과도한 탐방객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7b). 또한 셋길이 법정탐방로보다 약 4.9배가 많은데 이는 도심공원의 특성상 기존 탐방로에 식상한 재방문객과 주말 등 성수기에 법정탐방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셋길을 이용하는 탐방객들로 인한 현상으로 추정되며, 법정탐방로와 셋길에 대한구분이 없을 정도로 무분별한 이용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이기도 한데 탐방로 훼손과 셋길 발생, 공원 인접지역 난개발로 인해 서식 공간 단절 등의 생태계 파편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0a). 서식지의 단편화로 인한 생태계 단절은 바람과 일조, 공기와 토양습도 등의 변화와 하천유역 체계와 수질의 악화, 침입종의 경쟁이나 포식, 기생의 증가, 큰 척추동물을 포함한 작은 개체군의 멸종 확률 증가 등을 초래함으로써 생물 군집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종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7a). 탐

방객 대부분이 정상정복과 능선, 계곡 등을 이용하는 탐방문화와 과도한 탐방객 수 등 현재와 같은 이용행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는 지속가능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왜곡된 탐방문화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 조사분석방법

북한산국립공원 관련 선행연구(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0; 2007a; Lim, 2002)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이며,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탐방객이 71.8%~87.0%에 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69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권역별, 성별, 연령대별로 모집단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총 300명을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5문항), 일반적인 등산 행태(3문항), 환경 관련 태도(2문항),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에 대한 태도(4문항), 둘레길 조성 원칙과 방향, 이용의사 등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에 관한 태도(16문항)를 묻는 크게 5가지 범주의 질문군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PC+1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위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권역/성/연령대별로 모집단을 비례 할당 후 표본을 추출한 까닭에 성별 구성은 남성이 151명(50.3%), 여성이 149명(49.7%)으로 남녀 응답자 비율이 동등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도 거의 유사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18%), 학생(15.0%), 사무기술직(11.7%), 전문직(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의 응답자가 전체 68.7%로 대체로 높은 학력 수준을 보였고 중졸 이하는 7%에 불과하였다. 소득 수준도 200만원 이하 12.3%를 비롯, 401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15.7%, 301만원 이상~400만

원 이하 22.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체로 고학력에 소득별로 고른 이용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객의 일반적 특성과 유사한 결과로서 북한산 국립공원 대상의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의 둘레길 조성에 있어 적용가능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 이용행태

서울시민들의 일반적인 등산 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등산 빈도, 등산인으로서의 인식 여부, 등산경력과 정상정복형 등산 여부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등산 빈도를 조사한 결과, '등산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두 번도 채 등산을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27.3%, '한 달에 한두 번은 등산을 한다'는 응답은 22.3%였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도 17.3%로 조사되어 서울시민의 65% 이상이 근교의 산을 등산형태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30대 연령층의 44.1%와 40.8%가 '전혀 등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23.2%와 29.6%로 응답비율이 감소하였다. 60대 이후는 18.2%에 불과하고 '거의 매일 등산을 한다'는 응답도 15.2%로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고령시대로 진입하는 가까운 미래에는 건강유지를 위해 등산과 같은 걷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등산경력은 1년 미만인 10% 초반임에 비해 9년 이상이 30%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각각 13.2%와 18.4%에 불과한 수치가 40대(39.1%)>50대(44.4%)>60대(48.5%)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등산의 빈도와 비례하여 등산경력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7%는 본인 스스로 등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75.8%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인식은 급증하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응답자의 81.8%가 스스로를 등산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등산을 자주하고 경력이 길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등산인이라고 평가한 201명의 응답자들 중 평소 정상정복형 등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1%가 넘는 103명의 응답자들이(전체 응답자의 34.3%) '정상을 목표로 등반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정상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Figure 1). 이 같은 결과는 가장 최근 실시된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대상 조사에서 72.7%가 방문 시 활동으로 정상 등반 목적의 등산 활동을 든 것(Korea National Parks Service, 2010a)과도 일치하는 경향으로 탐방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관리적 노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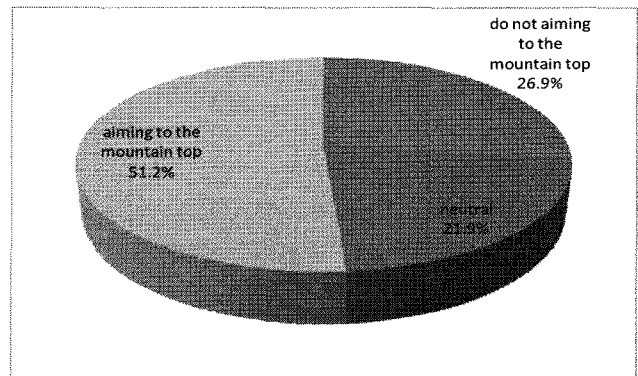


Figure 1. Goal of Climbing

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지향형 등반행태가 우리나라 등산활동 인구의 일반적인 이용행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50대 이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이 같은 정상지향성은 감소하고 있다.

3.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정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서는 '환경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수준의 관심정도를 나타낸 응답자는 31%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도에 비해 환경보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한다는 층은 상대적으로 적어 31%였고, 보통수준이라는 중립적 집단이 51.3%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환경보전에 관심을 지니고 있으면서 실천노력이 보통 수준인 층이 전체의 30.7%로 가장 많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7.7%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환경에 관한 관심도와 보전을 위한 노력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40대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50대의 경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둘레길의 조성방향에 있어 주 이용계층이 될 중장년층의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에 대한 태도

북한산국립공원 방문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0%가 방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지난 1년간 1~3회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2.9%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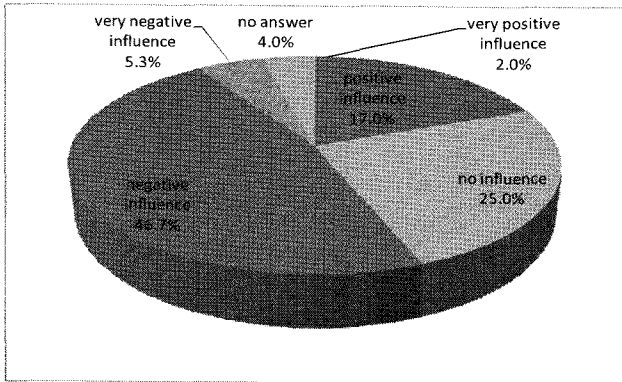


Figure 2. Influence of Climbing on the Mountain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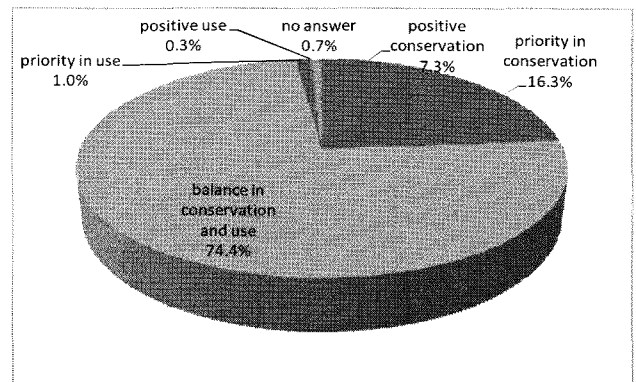


Figure 3. Managerial Direction for Bukhansan

Table 3. Positive Influence of Climbing on the Mountain Top by the Frequency of Mountaineering

Positive Influence of Climbing on the Mountain Top	Frequency of Mountaineering					
	Almost everyday	More than twice in a week	Once in a week	Once or twice in a month	Rarely go climbing	Never go climbing
%	57.1	33.3	15.2	19.4	15.9	18.2

Table 4. Preference to Conservation by the Climber Group and the Years of Mountaineering

Preference to Conservation	Self Evaluation as a Climber		Years of Mountaineering				
	Climbers	Non climbers	Less than 1 year	1~3 years	3~6 years	6~9 years	Longer than 9 years
Mean	3.32	3.25	3.44	3.38	3.36	3.33	3.22

북한산국립공원 정상으로의 등산활동이 북한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자는 약 52%로 나타났다. 반면, ‘아무 영향이 없다’는 응답을 포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조사된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인식(Korea National Parks Service, 2010a)이나 과도한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의 상황과 비교할 때 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Figure 2). 특히 등산빈도가 ‘매일’ 혹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등산을 자주하는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Table 3)은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탐방객 환경교육 등의 보다 적극적인 탐방객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산국립공원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이용 측면(1.3%) 보다는 ‘보전지향적 관리’가 23.6%로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이용과 보전의 균형적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3).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생태계와 자연, 문화경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지정취치와는 차이를 보이며, 개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행 북한산국립공원의 실제 이용행태와도 대조적인 것으로 탐방객 만족을 위한 이용과 보전의 균형, 더 나아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탐방문화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스스로를 비등산인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과 등산경력이 긴 사람일수록 이용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Table 4).

5.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에 관한 인식

북한산국립공원 저지대를 환형으로 연결하여 북한산 경관을 조망하고, 주변 지역들의 생태·문화자원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수평적 탐방로를 의미하는 둘레길 조성에 대해 서울시민 응답자들의 약 과반수인 46.7%가 높은 찬성의견을 보였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응답 비율은 20.7%, ‘보통’이라는 유보적 의견을 나타낸 응답자는 31%로 조사되었다(Figure 4). 둘레길이 조성된다면 북한산 정상으로 등반을 하는 대신 둘레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58%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15%에 지나지 않아 정상정복형 탐방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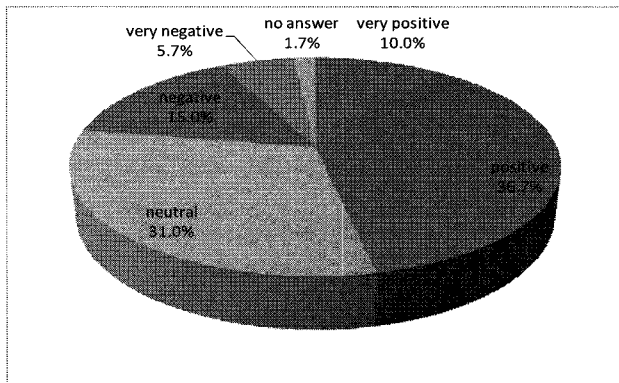


Figure 4. Degree of Agreement to Build Dulle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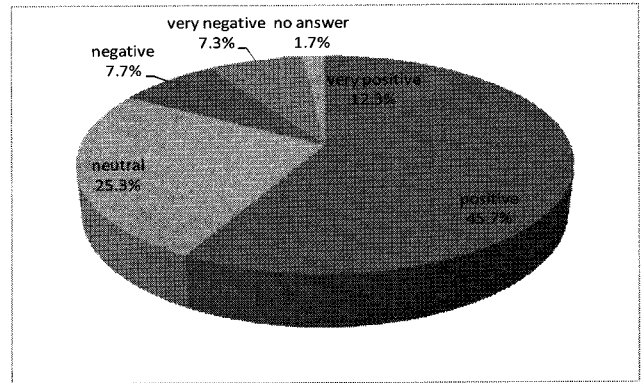


Figure 5. Intention to Use Dullegil

Table 5. Mean of Intention to Use Dullegil by Gender

	Gender	Mean	Mean Difference	t-value	P
Intention to Use Dullegil	Male	3.40			
	Female	3.75	0.35	-2.442	0.015*
Mean Total		3.57			

*: P<0.05, **: P<0.01

Table 6. Mean of Intention to Use Dullegil by Age

Age	Under 29	30's	40's	50's	60's
Mean	3.53	3.53	3.43	3.23	3.84

Table 7. Mean of Intention to Use Dullegil by Frequency and Years of Mountaineering

Frequency of Mountaineering						Years of Mountaineering				
Almost everyday	More than twice in a week	Once in a week	Once or twice in a month	Rarely go Climbing	Never go climbing	Less than an year	1~3 years	3~6 years	6~9 years	Longer than 9 years
3.14	3.08	3.12	3.21	3.47	3.35	3.41	3.5	3.35	3.56	3.11

로 조성되고 있는 둘레길에 대한 향후 이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Figure 5). 그러나 주 등산계층인 남성(5점 척도상 평균 3.23)의 둘레길 이용의사가 여성(5점 척도상 3.75)보다 낮게 나타났다(Table 5). 또한 40대와 50대가 기타 연령층에 비해 이용의사가 낮았고, 북한산 탐방을 포함하여 등산빈도가 높고, 등산경력이 많을수록 둘레길 이용의사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6과 Table 7).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 등산계층에서 둘레길 이용의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 같은 결과는 산정상 부로의 탐방집중을 분산하고 산정상부 생태계와 종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둘레길 조성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둘레길의 조성원칙으로는 '자원보전 노력'을 (리커트 5점 척도상 평균값 4.26)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관조화 노력', '이용편의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6).

둘레길 조성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조성원칙에 부합하도록 북한산의 생태환경 보존과 생태적 가치 향유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요소로 들었으며(5점 척도상 평균값 3.88), 또한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조용한 휴양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 이용행태인 서울시민을 위한 근린공원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였다(Figure 7).

둘레길 조성에 요구되는 시설을 5점 척도(1점: 전혀 필요치 않다 ~ 5점: 매우 필요하다)로 조사한 결과 안전시설의 도입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4.04), 안내시설(3.83)과 관리시설(3.77)은 다른 시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Figure 8). 기타 필요한 편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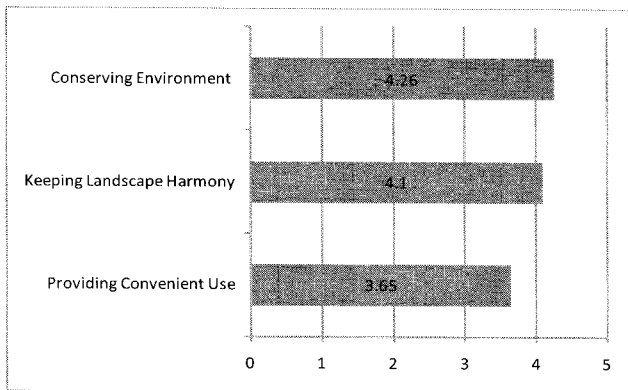


Figure 6. Mean of Guiding Principles of Nature Trails (1: not important at all ~ 5: very important)

에 대한 개방형 응답에서도 아이들이나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이 외에는 환경훼손 감시시설, 환경관리기관, 야생동물 보호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해 시설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높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었다. 적정 탐방시간은 1~3시간 정도(62.3%), 적정길이는 11~20km (27.7%)와 21~30km (26%) 정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연환경보전과 국민 여가 기회 제공이라는 국립공원의 상반되는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훼손적 탐방행태를 대체하고 지속가능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줄 수 있는 공원자원의 개발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둘레길은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국립공원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내 20개 국립공원 중 이미 인근 지역에 둘레길이 조성된 곳은 한라산(제주도 올레길), 지리산(숲길), 변산반도(마실길) 등 3곳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에 2019년까지 770억원을 투입해 산 주변 둘레길 185km를 조성키로 했다(Yonhapnews, 2010). 또한 월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도 2011년까지 조사를 한 뒤 공원별로 둘레길 조성 방안을 세우기로 하는 등 둘레길 조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웰니스지향형 라이프스타일의 확산과 고령화 등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걷기 수요 또한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견되며,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적인 친환경적 국민여가공간으로서 국립공원의 둘레길에 대한 이용 수요도 잠재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존의 환경훼손적 정상등반 형태의 탐방을 대체할 수 있고, 자연,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둘레길 조성의 목적이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9a).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지속가능한 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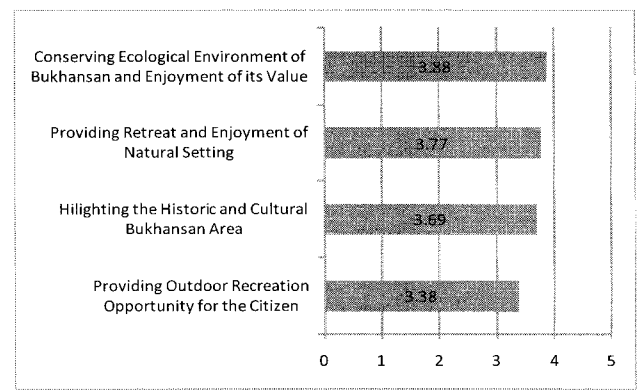


Figure 7. Planning Direction of Nature Trails (1: not important at all ~ 5: very important)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있는 둘레길은 현행 정상정복형 탐방의 주 이용계층의 분산유도가 아닌, 또 다른 이용행태를 보이는 세분시장의 확대로 인해 국립공원에 추가적인 탐방집중과 과도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 탐방객 증가와 집중으로 인해 심각한 자연훼손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현재 도처에서 조성되고 있는 둘레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과 자원 정비 등 물리적 환경 조성과 함께 잠재이용객의 이용행태와 수요 등 탐방객 관련 요소들을 계획단계에 반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근거, 북한산국립공원의 둘레길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예견되는 도시형 국립공원 내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지가 북한산국립공원에 한정되고,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이용수요에 머문 한계점을 지닌다. 도심형 국립공원의 둘레길 조성과 관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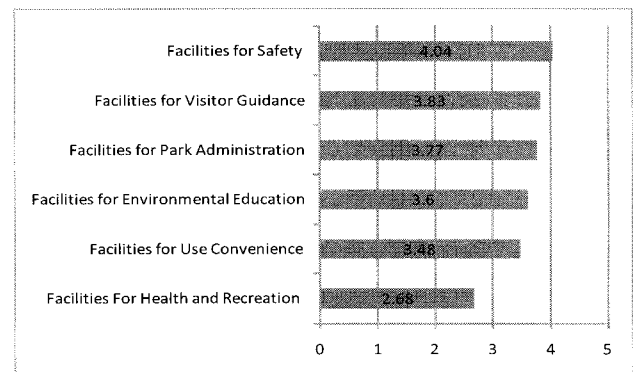


Figure 8. Facilities Needed in the Park

과 보다 일반화될 수 있는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실제 탐방세분시장별, 이용행태별, 수요별로 세분화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인용문헌

- Kim, J.M.(2007) Research on Visitor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the Nature Trail in Hallasan National Park. *Kor. J. Env. Eco.* 21(3): 223-23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im, Y.J.(2002) A Study on Visitor Use Behavior to Bukhansan National Park.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Korea, 64pp. (in Korean)
- Korea National Park Service(2000a) A Study on the Park Management by the Park's Attributes. 185pp. (in Korean)
- _____ (2000b) Master Plan of National Trail Management in the National Parks. Internal Data. (in Korean)
- _____ (2002) Resource Monitoring for Bukhansan National Park. (in Korean)
- _____ (2004a) A Study on the Resource Conservation Improvement of Trail Facilities in the National Parks. 68pp. (in Korean)
- _____ (2004b) Resource Monitoring for Bukhansan National Park. (in Korean)
- _____ (2007a) Park Improvement Plan caused by Visitor Increase and Environmental Damage. 39pp. (in Korean)
- _____ (2007b) A Study on the Capacity Management in the National Park. 237pp. (in Korean)
- _____ (2009a) Dullegil Master Plan. 226pp. (in Korean)
- _____ (2009b) National Park Trail Management Manual. (in Korean)
- _____ (2009c) Resource Monitoring for Bukhansan National Park. (in Korean)
- _____ (2010a) A Research on Visiter Culture Improvement for Bukhansan National Park. 310pp. (in Korean)
- _____ (2010b) Statistics. Korea National Park Service. <http://www.knps.or.kr> (in Korean)
- Maeil Business(2010) <http://news.mk.co.kr> (in Korean)
- Dong-A Korean Dictionary. <http://www.naver.com> (in Korean)
- www.trail.or.kr (in Korean)
- Yonhapnews(2010) <http://www.yonhapnews.co.kr> (in Korean)